



목포대 4-H 승달산 환경미화 봉사

목포대학교 원예학과 유용권 교수와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조직한 '목포대 4-H'는 지난 11일 목포대 주변 및 승달산을 등반하며 환경미화 봉사 활동도 펼쳤다.



광주시청자센터 '청소년미디어캠프' 진행
촬영·편집 등 특산중 학생 16명과 1박2일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이하 광주센터)는 오는 19일과 20일, 특산중학교 전교생 16명을 광주로 초대해 '2018 청소년미디어캠프'를 진행한다.

청소년미디어캠프는 미디어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을 찾아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제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산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앙림동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광주센터로 이동해 편집 교육 및 스튜디오 실습 과정을 거친다.

특산중학교 오창신 교사는 "지난해 참여한 미디어페스티벌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광주센터의 방송제작 전문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해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에서 미디어교육을 받고자 직접 광주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한편,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은 오는 7월 신안군 비금도에서 미디어 교육 캠프 및 영화상영회, 미디어 버스 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제8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라이온스클럽, 18쌍 신혼여행 선물

100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지구는 지난 10일 제8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약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결혼식에는 18쌍의 다문화 부부가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78개의 라이온스클럽은 경제적·문화적인 문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8쌍의 부부에게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도 함께 선사했다.

김철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대표회장은 "오늘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18쌍의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등을 당당히 극복하며 훗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기쁨 때나 슬픔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지구는 '행복나눔 합동결혼식'을 통해 매년 18쌍의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제1기 '해파 운상원 탐험대' 모집
운상원기념사업회, 오늘까지 접수

운상원기념사업회는 '해파 운상원 탐험대'에서 활동할 제1기 탐험대원을 모집한다.

'해파 운상원 탐험대'는 사업회가 운영하는 순수 자원활동가 조직으로서 운상원의 삶의 발자취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운상원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이 쏜 총에 숨졌다. 지난해 5·18기념식장에서 합창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원 자격은 글쓰기와 사진촬영을 좋아하는 시민이나 학생이면 된다. 탐험대원은 탐험활동을 진행한 뒤 탐험후기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와 자원봉사시간, 수료증 등이 주어진다.

참여 희망자는 13일까지 운상원기념사업회 카페(http://cafe.daum.net/518warrio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4-1123. /이연수 기자

■ '맨발의 사나이' 광양 출신 조 승 환씨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염원합니다”

광양 진월~임진각 427km 맨발 종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종주를 하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51)가 오는 27일 열린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축하와 성공 기원을 위해 임진각까지 맨발로 달리는 국토종주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광양시 진월면 배알도 자전 거도로시점에서 출발한 조씨는 427km를 맨발로 달려 오는 2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씨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전 세계 산을 오르는 목표를 실행하던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기 위한 종주를 계획했다”며 “고향 광양에서 출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양 출신인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개인적인 좌절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주식투자에 실패해 8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그는 폐기용 진단을 받은 뒤 죽을 마음으로 기어 도봉산을 올랐다. 그러나 정상을 밟고 나니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 매일 도봉산에 올랐고,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맨발 산행에 도전하고 있다.

조씨는 한겨울 맨발로 태백산 정상에 5차례나 올랐고 지난해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얼음 위에 올라선 채 1인 시위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유일한 분단국가 현실을 각인시키고 울림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맨발 산행을 고수한다”는 그는 지난

해 6월 일본 후지산, 11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기원 100km 마라톤, 올해는 3·1절 맞이 한라산을 맨발로 등반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맨발로 산줄기를 타서 북한까지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조씨는 “이번 국토종주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0일 조승환씨의 국토종주 시작을 응원하며 시청 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조씨는 얼음 위에서 맨발로 서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토종주 각오를 다졌으며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현 광양시의회의장은 시청 현관 앞에서 조씨와 함께 정문까지 맨발로 달리는 퍼포먼스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안전사고·건설재해 제로화 앞장”

광주도시공사-한국건설관리공사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진화된 안전관리 및 건설분야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번 업무협약(MOU)으로 공사에서 관리 중인 사업장 25개소의 안전관리 및 건설현장 관리의 선진화를 꾀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술지원과 협력관계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건설재해 ZERO를 위한 공동목표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토목·건축·전기·

기계·소방 등 기술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자문 등이다.

유광중 광주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안전 점검과 선진화된 건설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에서 관리 중인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안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화·목 친절데이’ 호응
현장민원 간담회·친절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매 주 화·목요일에 다중집합장소인 광천동터미널과 광주승정역 등지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 따르면 연수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매 주 화요일과 목요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즉석 민원간담회 및 친절·안전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화·목 택시친절데이”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8.68%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광주시와 경찰, 기타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면서 사망자수가 전년동기대비 44.8%가 감소했다.

/강성수 기자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 대표 회의

전남여수 엠블호텔서 기부문화 활성화 논의

전남사회공동모금회는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전국 지역 회원 대표들이 12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연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인 최신원 대표(SK네트웍스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 아너 회원 지역대표 18명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모임은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 대표들이 모여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갖는 자리다.

이날 우수지회 시상과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각 지역 아너 대

표들은 아너 소사이어티 우수 사례를 공유, 아동 청소년 방과후 교육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연수 사무총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더 밝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노동일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대표 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전남 뿐만 아닌 지역에서도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게시판

결혼합니다

◇박중수(전남매일 자치평론 본부장)·주호숙씨 장남 통일군(MBN기자), 이재영·조애련씨 장녀 호경양(숙명여고 교사)= 28일(토) 낮 12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당. 광주 피로연 13일(금) 오후 5시 NC백화점 9층 자연별곡

부고

▲윤지혁씨 별세, 장현씨(광주광역시) 부친상= 12일 0시 44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발인 14일(토) 오전 9시, 장지 나주시 다도면 선영, 062-220-3352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Green Funeral Home) with details for two funerals. It includes names, dates, and times for services.